

## 긴급조치9호 철폐투쟁 30주년 기념문집 30년만에 다시 부르는 노래 (유신독재를 넘어 민주로)

- 엮은이 : 긴급조치9호 철폐투쟁 30주년 기념행사 추진위원회
- 펴낸이 : 이상경
- 펴낸곳 : 자인
- 발행일 : 2005년 5월 13일

1. 내용의 일부 혹은 전체를 인용, 발췌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저자와 출처를 밝혀 주셔야 합니다.
2. 본 자료는 <http://www.kdemocracy.or.kr/KDFOMS/>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

### 민 주 화 운 동

당신이 만든 우리의 희망입니다

민주주의 발전과 통일한국의 미래.  
대한민국의 저력을 이야기 할 때마다  
민주화운동의 소중한 경험과 정신을  
힘주어 들려주십시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는  
우리들의 소중한 뜻이 펼쳐지도록  
국민들과 함께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Korea Democracy Foundation  
서울시 중구 정동 34-5 배재정동빌딩 1-3층  
전화 02-3709-7500 팩스 02-3709-7530  
<http://www.kdemocracy.or.kr/>

## 한국 사회에서의 긴급조치9호 세대의 위치와 역할

소준섭\_ 한국외대 중국어과 78학번. 전민련 부대변인, 새사회연대 기획실장, 국제관계학 박사, 국회도서관 해외자료관(현)

### 1. 머리말

엄혹했던 긴급조치9호가 선포된 지도 어느덧 30주년을 맞고 있다.

그간 우리 사회가 겪어왔던 변화는 격변 그 자체였고, 그 격렬한 변화를 실현시키는 과정에서 민주화운동 세력의 역할은 실로 막중한 것으로서 한국 현대사의 진보와 전진에 있어 실질적인 추동력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이 시점에서 우리가 특별히 긴급조치 1, 2, 4, 7호 등의 '종합판'이라고 불리던 긴급조치9호의 압제를 온몸으로 돌파해냈던 '긴급조치9호 세대'의 위치와 역할을 조명해보고자 함은 단지 술자리의 술안주로서 한때의 무용담을 기억하고자 함도 아니며, 지금 우리의 과거 행적을 들춰내 논공행상을 주창함으로써 우리의 몫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은 더욱 아니다.

지금 우리가 다시 그 시기의 운동을 되돌아보고 평가를 내리려고 하는 진정한 뜻은 당시 우리들이 소망했던 바의 그 목표지점은 여전히 아스라이 보일 듯 잡힐 듯 먼 곳에 존재하며, 그리하여 역사는 아직 우리에게 더욱 헌신하고 더욱 노력할 것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 2. 긴급조치9호 세대의 규정

'긴급조치9호 세대'라는 용어의 규정에 대해서는 확정된 바가 없다.

국어사전을 보면, 세대(世代, Generation)란 "공통의 체험을 기반으로 하여 공통의 의식이나 풍속을 전개하는 일정 폭(幅)의 연령층"이라고 풀이되고 있는데, 첫째, 가계계승의 단위, 둘째 동기집단, 그리고 생애단계라는 세 가지 의미로 이해되어 왔다.<sup>1)</sup>

한편 사회학자 칼 만하임은 세대를 사회학적 측면에서 분석하고 있는데, 그는 그의 논문 '세대의 문제 (1952)'에서, ① 세대의 상황, ② 세대의 관련, ③ 세대의 통합이라는 세 가지 측면에서 고찰하고 있다. 우선 '세대의 상황'은 세대가 태어나는 사회적 기반을 말하는 것으로서, 곧 역사적·사회적 통합의 가능성을 가진 일정한 사람들이 일정한 사회에 존재하고 있는 상태를 의미하고 있다. 그리고 '세대의 관련'은 이와 같은 상황 하에서의 인간이 역사적·사회적으로 공통되는 일정한 문제에 관계를 가짐으로써 만들어지는 것을 의미한다. 세 번째의 세대의 통합이란 세대가 집단생활 속에서 서로 결합되고 서로 작용함으로써 일정한 힘으로 발전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에 따라 세대는 역사적·사회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해석하고 있다.

우리가 세대라는 개념을 말할 때, 예를 들어 '민청학련 세대'는 '민청학련'이라는 사건에 관련된 사람들을 중심으로 하는 세대이고, '6.3 세대'는 '6.3 사태'를 주도했거나 참여했던 세대를 가리킨다. 그리고 '전대협 세대'는 '전대협'이라는 조직에 참여하여 운동을 집단적으로 추동했던 세대를 지칭하고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긴급조치9호 세대'라고 할 때 광의의 개념에서 보자면, 긴급조치9호라는 폭거조치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그것에 저항하여 투쟁했던 모든 사람들을 가리킬 수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굳이 '긴급조치9호 세대'라고 표현하여 '세대'를 강조하는 협의의 의미에서 보자면, 긴급조치9호 이전의 투쟁, 이를테면 긴급조치4호라든가 7호에 관련된 투쟁이나 긴급조치 이후의 80년 광주항쟁이나 계엄철폐 투쟁 등을 제외시킨, 즉, 긴급조치9호의 이전 및 이후 시기와는 상대적으로 단절되어 순수하게 긴급조치9호가 작동하고 있던 시기라는 일정한 시대 상황 하에서 긴급조치9호 철폐 및 민주화투쟁을 집단적으로 실천한 세대라는 개념을 가진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를 통상적으로 쉽게 '학번'의 개념을 사용하여 말하자면, 긴급조치4호나 긴급조치7호 등과 관련된 운

1) 한국사회학회: <한국사회의 세대문제>, 나남출판사, 1990, 35쪽.

등을 실천한 이전 학번과 달리 ‘순수하게’ 긴급조치9호의 객관 조건에서 투쟁을 실질적으로 주도하게 된 73학번부터 긴급조치9호가 해제된 1979년 12월 8일까지의 투쟁이 가능했던 78, 79학번까지의 세대를 가리킨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학생운동 외에 노동운동과 농민운동 부분에서도 유사한 개념이 존재할 수 있으나, 당시의 운동 정도가 자연발생적이었고 또한 활동기도 극히 소수였기 때문에 동일 연령층의 집단적 의미를 지닌 세대라는 용어를 사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며, 재야 운동에서 세대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더욱 부적절하다). 본고에서는 후자, 즉 협의의 개념을 사용하고자 한다.

### 3. 긴급조치9호 선언의 객관적 배경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한국 사회는 일제 식민지시대부터 비대한 국가기구(과잉성장국가)가 지속되었으며, 이것이 6.25 전쟁 이후의 정치사회적 변화과정에서 축소되기는커녕 오히려 확대, 강화되는 과정을 거쳤다. 나아가 전쟁을 거친 후에는 아예 한국 사회가 총체적으로 극우적 공동체로 전화되기에 이르렀으며, 이는 냉전과 내전이라는 역사적 경험을 토대로 하여 성립되어진 우익적 결합으로 해석될 수 있다.

당연하게도 이 과정에서 사회운동은 ‘초도화’ 될 수밖에 없었다. 한국 사회에는 이렇듯 냉전적 논리가 철저히 내재화되었고, 특히 한국전쟁을 경과하면서 남한의 국가는 권위주의적 체제로 유지되는 강력한 관료제적 국가로 변화되었으며, 이른바 철저한 “반공 규율사회”를 형성시키기에 이른다. 이러한 객관적 조건 하에서 시민사회에 대한 국가의 압도적 우위라는 상황이 형성되었고, 이 비대칭적 국가-시민사회 관계에 토대를 둔 반공 규율사회는 박정희 정권의 국가주의적 동원과 권위주의적 통합을 가일층 강력한 통치기제로 만들어 놓았다.<sup>2)</sup>

70년대에 들어서 박정희 정권은 가장 강력하게 군림했지만, 동시에 그것은 동전의 양면처럼 자기 종말을 준비하는 과정이기도 했다.

1972년 10월 17일, 박정희 정권은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일체의 정치활동 금지, 전 대학교 휴교 등의 조치를 취한 가운데 이른바 10월유신을 강행하였다. 이에 대해 학생운동권은 10.2 데모 등으로 끈질기게 저항을 계속하였고, 정권은 긴급조치1호, 2호를 잇달아 발동하면서 봉

2) 조희연 : 〈한국의 국가·민주주의·정치변동〉, 당대, 1998 제장을 참조할 것.

쇄하고자 했다. 다음해인 74년 4월 ‘민청학련’ 사건이 발생하자, 정권은 이를 기화로 긴급조치4호를 선포함과 동시에 대대적인 탄압을 자행하여 학생운동을 일거에 절멸시키려 했다. 하지만 동 사건이 무자비한 고문에 의한 관제 사건이라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오히려 국내외의 거센 반발을 불러일으키게 되었다. 전국적으로 거센 저항에 부딪힌 정권은 이번엔 긴급조치7호를 발동하여 고대에 휴업령을 내리는 등 계속되는 긴급조치의 비상수단으로써 민주화운동의 불길을 끄고자 하였다.

그러던 75년 4월 30일, 베트남이 사이공 함락과 함께 공산주의인 북베트남의 주도 하에 통일이 이뤄지자 박정희 정권은 전국적으로 안보위기의식을 고조시키고 대대적으로 반공과 안보를 선전하였다. 그러면서 마침내 5월 13일 ‘국가안전과 공공질서의 수호를 위한 대통령 긴급조치9호’를 선포하였다. 이 긴급조치9호에 따라 유신헌법의 부정, 반대, 왜곡, 비방, 개정 및 폐기 주장, 청원, 선동 또는 이를 보도하는 행위 자체까지 일체 금지시켰고, 위반자는 영장 없이 체포한다는 내용의 긴급조치9호는 기존에 선포되었던 긴급조치 1, 2, 4, 7호 등을 종합적으로 보완한 것으로서 세계적으로도 그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치밀하고도 완벽하며 극악적인 탄압 기제라고 할 만 하였고, 이는 곧 유신체제의 영구화를 기도하는 제도적 장치에 다름 아니었다.

### 4. 긴급조치9호 시기 학생운동의 역할

긴급조치9호는 사실상 민주화운동의 핵심세력인 학생운동의 뿌리를 뽑으려는 데 그 주안점을 두고 있었다. 긴급조치9호와 함께 제정된 4대 전시입법 중 하나인 ‘교육관계법 개정법률’을 제정하여 학생회를 전면 해체하는 대신 학도호국단을 창설하였고, 교련시간을 대폭 확대하였으며, 1학년 신입생은 무조건 전원 군대에 1주일 입소하는 ‘병영집체훈련’을 받도록 하였다. 또한 시위 예방 및 진압을 위한 교수동원 체제를 확립하는 동시에 지도교수제를 강화하였고, 모든 서클에 재등록절차를 밟도록 하여 회원명단을 전원 제출토록 하였다. 데모 진압 방식도 더욱 노골화하여 학원 내 경찰력 투입이 합법화된 가운데 사복경찰이 학내 요소 요소에 거미줄같이 상주하게 되었고, 그리하여 데모가 일어나자마자 초기에 주동자를 체포하는 방식으로 나왔다. 또한 학교장 재량으로 위반자를 제명시키도록 하였으며, 재입학 불허 조항을 신설, 데모학생에 대한 철저한 보복조치를 취했다.

이처럼 합법 공개적인 활동이 모두 불가능해진 상태에서 학생운동은 근본적인 변화와 고도의 자기발전을 요구받았다. 이러한 상황을 반영하여 긴급조치9호 선포 직후 발생한 서울대 10.2 데모 이래 무려 1년 동안 전체 학생운동은 극심한 침체 상태에 들어가야 했다. 그러나 이러한 극악적인 탄압은 역설적으로 가장 철저히 훈련된 정예운동가들을 집단적으로 양성하는 결과를 낳았고, 이들이 다름아닌 긴급조치9호 세대들이다. 이전 시기의 상대적으로 자유주의적 성향이었던 부분이나 혹은 정치지향적 성향이었던 부분은 운동 전선으로부터 이탈되었다.<sup>3)</sup>

이제 학생운동의 주체들은 자신의 삶에 대한 확고한 철학을 바탕으로 철저한 이론과 올바른 노선으로 무장된 헌신적인 혁명가(활동가)여야만 했다. 이를 위해 유신독재 체제의 본질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특히 대대적인 안보와 성장 이데올로기를 극복할 수 있는 논리적 인식과 철학적 태도가 더욱 필요하게 되었고, 이로부터 이미 비합법화된 이념 서클의 활동이 내면화되고 심화되었다. 이렇듯 철저한 비합법적 객관조건은 광주항쟁 이후 83년 11월의 학원 자율화조치 이전까지 계속 이어진다고 볼 수 있고, 따라서 '전대협 세대' 이전의 이른바 '집시세대, 즉, 집회 및 시위와 관한 법률 세대는 긴급조치9호 세대와 여러 측면에서 공통점을 가지고 있으며 비교적 동일한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될 수 있다.

엄혹한 긴급조치9호의 서슬 퍼런 압제 하에 상대적으로 학내 자유가 보장되던 기존의 상대적 합법시대에서 완전한 비합법시대로 변화된 '전환기'의 상황에 처한 학생운동은 이제 근본적인 방향전환과 치밀한 내부역량의 축적을 준비해야 했다. 5·22 투쟁 이후 1년여에 걸친 상대적 침체기를 겪은 학생운동은 드디어 76년 서울대에서 12월 8일 투쟁의 횃불을 올렸고, 이는 이미 학생운동이 긴급조치9호의 극단적인 탄압을 극복하기 시작했다는 의미를 가지는 것이었다. 특히 이 시위에서 시위 주도자들의 자기희생적인 자세는 이후 긴급조치9호 시기 학생운동의 귀감이 되었고, 이 시기 학생운동 활동가의 전형으로 자리잡았다. 이 시위를 계기로 다시 노도와 같은 투쟁의 불길이 당겨졌고, 이는 다시 78년의 6.26 광화문시위 그리고 부마항쟁으로 이어져 마침내 79년 10월 26일 박정희 군부독재는 그 종말을 고하게 되었다.

우리는 70년대 긴급조치 시기의 한국적 특수상황에서 학생운동이 다음과 같은 역사적 역

3) '객관적 조건'이 '주체의 성격'을 규정하게 되는 이러한 의미에서 볼 때, 비합법 조건이 사라진 학원자유화 조치 이후 그리고 '전대협' 등 학생운동의 양적 팽창기에 정치지향적 성향의 부분이 다시 운동에 적극적으로 합류했고, 이것이 '긴급조치9호 세대'와 '전대협 세대'나 '386 세대'의 차이를 발생시켰던 몇 가지 조건 중의 하나라고 해석할 수 있다.

할을 수행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첫째, 이 시기의 학생운동은 한국 사회에서 유일하고도 지속적인 집단적 정치투쟁을 전개하였다. 당시 학생들은 언제나 집단적 동원이 가능하고 높은 정치의식을 가진 집단으로서 다른 사회세력에 비해 상대적으로 조직화되어 있었기 때문에 중요한 정치, 사회적 이슈에 대처하여 신속하고 기민하게 대처할 수 있었다. 이는 대중적 투쟁의 조직체가 결여되어 있던 70년대 당시의 현실 속에서 학생운동이 민주화투쟁을 사전에 조직할 수 있는 가장 큰 위력을 가지고 있던 정치세력이었던 데에 기인하고 있었다.

둘째, 이 시기의 학생운동은 박정희 독재정권의 정치적 기반을 강타하여 고립시키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학생운동은 시위와 선동을 통해 박정희 정권의 반민주적 반민중적 본질을 폭로하여 민중의 그릇된 지지를 철회하게 만들었고 그들을 민주화운동의 소극적 내지 적극적 동조자(부마민중항쟁 당시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그 대표적인 사례라 할 것이며, 이러한 방식은 광주민주화운동의 전범이 되기도 하였다)로 확보하였으며, 권력 자체 내의 내분을 심화시키고 국제적인 여론을 환기시킴으로써 독재정권에 대한 국제적 지원을 약화시키는 효과를 창출하기도 하였다. 또한 결과적으로 학생운동에 대한 엄혹한 탄압, 무자비한 진압과 체포, 제명 등은 그 자체로 박정희 독재정권의 반민주주의적인 본질적 성격을 스스로 명백하게 폭로시키는 것이었다.

셋째, 이 시기의 학생운동은 민중운동의 선도체로서 정치투쟁을 수행하는 선도적인 정치투쟁체로서 민중에 대한 직접 선전 및 민중봉기의 기폭제 역할을 지속적으로 수행하였다. 특히 78년 6월 26일 광화문 가두시위로부터 79년 10월 16일 폭발한 부마민중항쟁에 이르기까지 수차례에 걸쳐 엄중한 탄압망을 뚫고 가두시위를 감행함으로써 가두에서 대중들에게 직접적으로 과감한 선전을 수행하였고 이는 대규모적인 민중합세를 유도해 대대적인 민중항쟁으로 연결되었다. 79년과 80년에 연이어 전개되었던 부마항쟁과 광주항쟁은 이러한 방식에 의한 민중들의 전면적인 정치투쟁이었으며, 이러한 의미에서 부마항쟁과 광주항쟁은 한국 민주화운동의 반군부반독재 투쟁의 연속선상에서 파악되어야 할 것이다. 긴급조치9호 시기의 대표적 투쟁의 하나인 6.26 광화문 시위 사건은 당시의 엄중한 탄압 정세 속에서 정권의 심장부라 할 수 있는 광화문에서 연합시위가 수행되었다는 점에서 철학의 어둠 속에서도

완강한 생명력으로 성장해온 학생운동의 축적된 만만치 않은 역량을 보여줌과 동시에 박정희 독재정권의 종말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암시한 사건이라 할 수 있으며, 학생시위가 지향해야 할 최고의 형태가 가두시위라는 점을 분명히 보여준 투쟁이었다. 정치투쟁의 궁극적인 장소는 가두이며 여기에서 학생운동은 비로소 학원이라는 울타리를 넘어 민중의 직접선전을 수행하며, 이를 통해 전민중적 봉기로 발전시킬 수 있었던 것이다.

따라서 당시의 학생운동은 80년대의 투쟁 형태를 예시하였다고 파악할 수 있다. 즉, 학생시위 선봉 - 민중합세 - 민중봉기 - 연속적 도시봉기라는 한국적 민중항쟁의 방식을 제시한 것이었다. 당시 유일하게 가두가 가능했던 집단인 학생세력은 민중을 대변하여 선도적 정치투쟁체의 기능을 수행하여 투쟁의 선봉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전 민중적 투쟁의 발판을 만들었고, 이 과정에 가두의 민중들이 대대적으로 합세하여 대중 봉기화하고 이것이 다시 다른 도시로 연속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방식이다.

넷째, 이 시기의 학생운동은 기타 사회운동에 대한 지원과 아울러 연대운동의 구성에 기여하였다. 지속적이고 신속, 과감한 정치투쟁을 통해 타 운동을 자극, 활성화하였고, 수많은 학생운동 출신 활동가들의 발굴과 육성을 통해 강건한 운동기를 길러내기 어려운 척박한 풍토 속에서 전체 사회운동의 형성 및 재생산 기반에 절대적인 활력소를 제공하였으며, 전체 운동에 있어서의 연대의 기틀을 한층 강화하였다.

이러한 역사적 역할을 담당한 당시 학생운동의 정치투쟁 전통은 이후 80년대의 학생운동에 있어서도 흔들릴 수 없는 주류의 위상을 점하게 되었으며, 그러므로 이후 학생운동이 이론과 노선 투쟁으로 갈등에 빠지고 침체해있을 때마다 70년대에 정착된 선도적 정치투쟁체로서의 학생운동의 전통은 깜깜한 어둠의 시대에 빛을 밝히는 조타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었던 것이다.

## 5. '집단적 헌신성' 과 '씨알의 세대'

긴급조치9호 세대를 우리는 '씨알의 세대'라고 이름 지을 수 있다.

사실 긴급조치9호 세대는 이미 현 사회에서 명망가의 위상으로 부상한 선배 세대나 '전대협' 세대 및 '386 세대' 와 비교하여 그 명망성에 있어 현저히 뒤지며 대중적으로 걸출한 특별한 스타도 존재하지 않는다. 당연히 정치권에 성공적으로 진입한 경우도 상대적으로 적고

이른바 '입신양명'도 극소수에 지나지 않는다. 하지만 긴급조치9호 세대는 당시 시기부터 원래 "무엇이 될 것인가?"라는 개인적 미래에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오직 "무엇을 해야 하는가?"라는 현실에서 부여된 과제에만 몰두했던 집단이었다. 서슬이 퍼렇던 70년대 후반의 엄혹했던 긴급조치9호 시기, 일반 대중이 모두 숨죽일 때 비합법 언더그라운드에서 자기 헌신과 희생으로써 끈덕지게 역사의 수레바퀴를 돌리고자 했던 그 정신은 문자 그대로 "사랑도 명예도 이름도 남김없이" 묵묵히 자신을 불사름으로써 역설적으로 당시의 압제를 뚫는 가장 강력한 무기로 기능하였다. 극악한 탄압 하에서 자신의 이름이 알려지는 것은 곧 적들의 포로가 됨을 의미하는 것이었고, 동시에 모두들 시대와 역사의 부름에 묵묵히 따라 걸코 개인의 사사로운 명성과 이익을 구하지 않았다. 물론 언론에 대한 철저한 탄압으로 인해 이름이 공개적으로 알려질 수도 없었다. 이러한 객관적 조건 하에서 '집단적 헌신성'이 창출되었으며, 이러한 '집단적 헌신성'은 긴급조치9호 세대를 한마디로 규정지을 수 있는 특성으로서 오늘날까지 크게 변화됨 없이 이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론적인 측면에서 긴급조치9호 세대는 사회과학적 학습 커리큘럼을 체계화시킴으로써 자유민주주의의 범주를 크게 벗어나지 못했던 60년대와 70년대 초반의 학생운동 형태 및 이론적 차원을 극복하여 이를 민족민중문제와 계급문제 등의 범주까지 확대, 심화시키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조직적인 측면에서는 극악한 탄압 하에서 어쩔 수 없이 지하화할 수밖에 없었던 비합법 '이념 서클과 학회'의 학습 및 투쟁 조직을 체계화하여 학생운동의 재생산구조를 안정적으로 정착시킴으로써 다시는 무너질 수 없는 운동의 굳건한 '진지(陣地)'를 구축하는 조직적 성과를 거두었다. 주목할 만한 사실은 기존의 학생운동이 몇몇 대학에 국한되어 전개되는 양상을 보인 데 비해 이 시기에 들어서게 되면 대부분의 대학에 활동가들이 형성되기 시작하여 학생운동의 근거지를 크게 확대시켰고, 이는 80년 5월 전국적으로 전개된 반군부 투쟁의 토대로 기능하였다.

특히 이 시기에는 노동대중에 대한 관심과 노동운동에 대한 실천(노동현장으로의 투신)이 광범하게 이뤄져 80년대의 학생운동뿐만 아니라 87년 이후 폭발적으로 전개되어진 노동운동을 포함하는 광범한 대중운동의 토대를 구축해내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특히 긴급조치9호 시기에 제고된 '민중성'은 노동운동뿐만 아니라 농민, 빈민 등 대중운동에의 광범한 의식

적 활동기군(群)의 투신을 불러일으켰고 동시에 학술, 언론출판 등 각계각층의 중간층 운동을 지펴냈으며, 이는 나아가 다시 각 부문 운동을 연대하고 통일시켜 전체 민주화운동의 역량을 극대화시키는 데 결정적 역할을 담당하였다.

이렇듯 긴급조치9호 세대는 이슈 중심의 선언적이고 주로 재야 명망가 위주의 불연속적인 차원에 머물던 기존의 민주화운동을 연속적이고 강고한 대중운동의 차원으로 끌어올려 운동의 양적 질적 비약을 준비하는 시대적 임무를 담당했으며, 이러한 기반 위에 87년 6월 항쟁을 이끌어내는 데 있어 지대한 역할을 수행한 세대라고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80년 광주학살 이후 전두환 군부독재 정권의 살인적 탄압 하에서 지리멸렬되었던 전체 운동이 이를 단고 다시 일어나 더욱 가열찬 대중운동으로 발전될 수 있었던 데에는 긴급조치9호 세대들의 자기성찰적 헌신을 통한 운동재생산 구조의 정착, 그리고 이를 통한 80년대 민주화운동의 토양제공이라는 시대적 역할을 빼놓고 논의할 수 없다.

긴급조치9호 세대는 자신을 땅에 묻고 자신을 버림으로써 수많은 알곡을 거두어내는 '씨알' 처럼 어두운 압제의 시기에 자신을 헌신하고 희생시키면서 선배들의 전통을 계승, 발전시키고 동시에 80년대 비약적으로 성장, 발전했던 학생운동과 노동운동의 토양을 제공하여 뿌리를 내리게 하는 과제를 자신의 역사적 임무로 받아들이고 온 몸으로 실천한 세대이다. 긴급조치9호 시기의 운동을 통하여 질적으로 심화되고 양적으로 확대된 학생운동은 '광주의 충격을 이겨내는 결정적인 조건이었다. 동시에 지하 학회 및 서클을 통한 후배 세대들에 대한 치밀하고도 끈질긴 지도와 지하 팜플렛 등을 통한 이론 및 운동노선에 있어서의 분명한 지도력을 발휘함으로써 학생운동은 한국 민주화운동의 견인차였다. 그리하여 이후 시기 태동된 '전대협'과 이른바 '386 세대'를 민주화 쟁취의 세대로 성장시키는 데 있어서 '씨알'의 역할을 담당하였던 것이다.

## 6. 여전히 다가서지 못하고 있는 목표지점

앞으로 2년이 더 지나면 87년 6월 항쟁을 통해 군사독재 정권을 무너뜨린 지 20년을 맞게 된다. 그동안 한국 사회의 정치적 민주화 수준은 가히 세계가 놀랄 만큼 제고되었다. 그러나

외적 형식의 눈부신 변화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더욱 놀라게 하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사독재 시기의 제반 시스템이 우리 사회 내부에서 여전히 강고하게 작동하고 있다는 바로 그 사실이다.

87년 대선에 있어서 양김 단일화의 실패 이래 92년 대선에서 승리했던 김영삼 정권은 3당 합당을 통한 정권획득이었으며, 그 뒤를 이은 김대중 정부는 DJP 연합을 통해 비로소 가능했었다는 역사적 사실을 상기한다면 이 땅에서 왜 진정한 개혁을 시행할 수 있는 기회와 동력이 결여될 수밖에 없었는가가 설명될 수 있을 것이다. 수구보수 세력과 결탁하여 정권을 잡았기 때문에 처음부터 분명한 개혁노선을 취할 수 없었고, 결국 기존의 정치 세력에 의존하여 그들의 손에 개혁을 위임하는 과정을 되풀이할 수밖에 없었다. 그리하여 외면적인 형식에 있어서는 민주 정부였지만 절대다수의 기존 수구세력에 극소수의 새 정권 세력이 불안정하게 동거하는 형태로, '군림은 하지만 지휘가 되지 않는', 그리하여 실질적인 내용에 있어서는 기존 수구세력의 시스템이 여전히 강고하게 작동하는 '무늬만 민주주의인' '외피적 민주주의'가 이어졌던 것이다. 이 사회 곳곳에 보수 세력의 힘이 여전히 온존하고 심지어 실질적인 주도력으로서 발휘되고 있는 현실은 이러한 조건들을 토양으로 하고 있다.

역사에 가설은 있을 수 없지만 만약 87년 대선 당시 양김의 단일화가 이뤄졌다면 그 자체로서 기존 수구보수 세력의 입지가 현저하게 좁아지는 것이었으며, 그럴 경우 개혁은 광범한 국민적 동의를 획득한 조건 속에서 확실한 추동력을 가지게 되었을 것이다. 하지만 현실에 있어서는 단일화에 실패하여 군부의 후계자 노태우에게 정권을 넘겨줌으로써 야당정치세력을 포함하는 전체 민주화진영은 주도권을 완전히 상실했고, 특히 운동진영은 극심한 분열상을 노정하면서 자멸의 길을 걸어야 했다. 이로써 한국 사회에서는 더이상 도덕적, 정신적 지도세력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이 빚어졌다. 더구나 YS 정권 이래 정권을 담당하는 세력들이 기존 군부정권 시기의 구 지배세력과 비교하여 별다른 차별성 없이 기존의 정치행태와 인맥 중심의 구태를 반복하고 심지어 부정부패 사건에 연루되는 경우가 없지 않았기 때문에, '정책능력 및 수행의 차원이 아니라 최소한의 도덕적인 측면에서도 우위를 보여주지 못하고 권력의 정당성이 확보되지 못한 채 개혁은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에서 답보하였다.

이러한 상황으로 말미암아 민주화운동 세력이 정치세력과의 제휴와 연대 전술로써 성공적

4) 이러한 조직의 발전과 형태들에 있어 구체적인 사례들은 <뉴스메이커>신동호 기자가 장기간에 걸쳐 성실하게 취재한 "긴급조치9호 세대 탐험"이라는 제하의 기록으로부터 여실히 엿볼 수 있다.

으로 제도권에 진입하고 그 역량을 확대, 강화시켜 왔다는 분명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정치권의 기존 논리에 상당한 정도로 포섭됨으로써 기존 정치권을 거울이미지로 닮아갔다는 일각의 비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었던 것이다.

우리 민주화운동 세력은 무엇보다도 이러한 도덕성의 문제에 있어서 타협해서는 안된다. 국민들이 우리 민주화운동 세력에게 최우선적으로 요구하고 희망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도덕성에 대한 믿음이다. 지금 이 사회에 만연되어 있는 “누가 하든 똑같다”는 일종의 ‘사회적 공론’을 타파해 나가야만 한다. 하지만 동시에 이제까지 이러한 ‘사회적 공론’의 광범한 형성을 우리 운동세력이 현실과 쉽게 타협하는 모습을 대중들에게 노정시킴으로써 스스로 자초한 측면이 매우 크다는 사실도 겸허하게 인정하지 않으면 안된다. 반민주 군부독재정권에 저항하여 결단과 용기로 투쟁했던 당시의 초심을 언제나 가슴에 담고 살아가야 한다.

## 7. 맺음말 – 오늘 다시 부여된 과제

봄은 왔지만 우리는 아직 봄을 맞지 못하고 있다.

따사로운 봄날이 우리 곁에 다가선 듯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봄의 냄새를 완전하게 감지할 수가 없다. 빼앗긴 들이기 때문에 봄이 오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북풍한설 모진 겨울을 가까스로 이겨내고 되찾은 바로 그 들판 한 가운데에서 오히려 봄을 느낄 수가 없는 것이다. 아직 우리 사회의 곳곳에는 수구보수 세력이 강고하게 온존하고 있고, 개혁과 진보 그리고 사회의 형평성은 힘있게 전진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과연 우리들이 오늘날 지금 이러한 사회의 모습을 보기 위하여 우리의 젊음을 바쳐서 투쟁했던 것인가? 당시 긴급조치9호 세대가 꿈꾸던 이상(理想)은 각자 서로 상이할 수 있지만, 그 대체적인 공통 분모는 권력과 부의 정당성이 확보될 수 있는 사회, 기회의 평등이 구현되는 사회, 민중들이 경제적으로 소외받지 않는 사회 그리고 7천만 민족이 하나 되는 통일조국 등이었을 것이다. 이러한 꿈은 여전히 우리에게 유효하고, 이러한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고 헌신해야만 한다. 다만 그간의 경험에서 결코 역사가 한 순간에 이뤄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구체적인 오늘의 현실이 요구하고 있는 합리적인 대안의 모색에 힘을 경주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 점에서 그간 애국적이고 민족적인 투쟁을 전개해온 우리 민주화운동 세력은 이제 애국적 관점을 한 차원 승화시켜 우리 ‘한국호’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하여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 암울했던 긴급조치9호 시기에 조국의 앞날을 위해 ‘투쟁으로써’ 헌신했다면, 오늘의 현 상황에서는 이전 시기 “무엇이 될 것인가”에 관심 없이 오로지 “무엇을 할 것인가”에 매진했던 바로 그 자세로 지금 또다른 차원에서 극도의 혼미에 빠져있는 조국의 미래를 위해 ‘정책 연구 및 대안과 시스템의 개발’에 다시 한번 헌신해야 하는 것이다. 현재 한국사회의 전진을 위하여 해결해야 할 과제로 부상하고 있는 권력과 부의 정당성 확보를 통한 사회통합, 명확한 법적 규율의 설정과 준수에 의한 법치주의의 정착, 지속적 경제발전, 기회의 평등과 사회적 공평성의 제고, 다원주의가 승인되는 공동체의 건설, ‘중등강국(中等強國)’으로 성장한 국가신분(國家身分)에 걸맞는 국가전략 수립 등의 당면한 시대적 임무에 대하여 책임있는 정책과 대안이 분명하게 모색되어야 한다. 이러한 과제의 수행을 위한 성실하고 진지한 실천이 곧 긴급조치9호 세대가 오늘 다시 부여받은 시대적 역할이다.

70년대 말기의 그 기나긴, 실로 아무런 희망의 불씨조차 보이지 않던 시기에 칠혹의 어둠 속에서 한 점 불꽃처럼 자신을 버림으로써 전체를 살리고’ 나아가 이 땅을 구하고자 했던 그 용기와 정신 및 관점, 동시에 선배들의 장점을 계승, 발전시키고 후배들을 키워내는 가교적 역할을 묵묵히 수행해냈던 긴급조치9호 세대의 그 전통적 미덕을 오늘에 다시 되살려야 한다. 지금 “세상이 다 그런 것 아냐?”며 현실의 두터운 벽은 고쳐질 수 없다는 냉소적 언사는 바로 70년대 말 주위의 모든 사람들이 되뇌던 “계란으로 바위를 쳐본들 무슨 소용이 있는가?”라는 비웃음 내지 자조어린 탄식과 본질적으로 다른 게 없다. 그때 진실로 계란으로 도무지 한 치도 깨지지 않을 것만 같던 그 바위덩어리를 결국 깰 수 있었듯이, 지금 이 순간에서도 바로 우리의 용기와 정신으로써 현실의 두터운 질곡을 깨뜨리고 조국의 미래를 희망의 색깔로 그려나갈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전진해 나가지 않으면 안된다.

우리가 이전 시기 시작은 ‘개인적인 결단’으로 했지만, 결국 ‘집단적인 헌신성’으로 시대의 어둠을 돌파해냈듯이, 오늘 다시 ‘개인적인 결단’들을 결집시켜 ‘집단적으로’ 조국의 희망찬 내일을 위해 연구하고 노력하고 헌신해야만 할 것이다.